

# '있다'와 '없다'의 사이길

김영호

경북대 교수·경제학

옛날 신라의 경주 근교에 살던 한 과부가 밤마다 개울건너 훤아비집을 드나들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아들이 어머니가 밤늦게 차가운 겨울넷물을 넘나드는 것이 안쓰러워 몰래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들의 행위가 효(孝)인가 불효(不孝)인가 분간하기 어려워 동네사람들이 그 다리를 '효불효교(孝不孝橋)'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나는 이 다리 이름이 좋다. 효나 불효나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숙단하기 어려운 고민과 양쪽을 다 포용하는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은 없다」는 책을 훑어보고 다시 「일본은 있다」는 책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한 것이 '효불효교' 고사이다. 일본은 '없다'나 일본은 '있다'로 단정하는 그 어느 한쪽보다는 일본은 있고도 없다는 양면을 함께 보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양면을 종합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응할 수 있고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대일관(對日觀)이 형성되고, 그것이 세계적인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얼마전 정신대운동모임에서의 일이다. 정신대 경험의 할머니가 나와 먼저 가진 정신대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이승의 환을 버리고 저승에서는 웃으며 편히 지내라고 기원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그때였다. 일반 카메라와 VTR카메라 등 아마도 백여대 전후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대부분이 일제 카메라였다. '소니' '도시바' '니코' 등의 상표도 쉽게 눈에 들어왔다. 선명한 반일(反日)의식과 현저한 대일(對日)기술의존이 너무나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이 경우 일본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없다고 해버리면 있다는 측면이 너무 강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없다는 측면이 너무 강하다. 따라서 그중 어느 한쪽에만 매달리게 되면 다른 중요한 한쪽에 대해서는 맹목이 되어버린다.

흔히 일본측에서 왜 한국에서 한편에서는 그렇게 반일적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본을 배우겠다고 하느냐고 야유조의 질문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구나 반일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일본 경제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을 비판하고, 산업협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반일적 입장을 견지하는 측을 비판함으로써 서로를 약화시키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일본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자기분열증세이기도 하다.

일본은 없다고 비판하는 경우, 그 비판대상은 일본의 배타적인 집단주의와 관련된 것이 많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주의를 모태로 일본적 경영이 이루어졌고, 일본적 경영의 산물로 일본적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주의와 일본의 기술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적 집단주의 측면에 대해서는 반일적 비판을 가하고, 일본의 기술혁신에 대해서는 수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 그것은 마치 굴을 양쪽에서 파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일본을 있고도 없다는 식으로 양면을 함께 보고 그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옛날 충청도 어디엔가 '피흘린내'라는 내가 있었다고 한다. 병든 어머니에게 드릴 물고기를 잡으러 한 젊은이가 넷물로 갔으나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잡지 못하고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르침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도 못하고 유불(儒佛)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께 갖다 드린다. 허벅지 살을 벨 때 피가 흘러내려 그 넷물을 '피흘린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피흘린내'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유불회통(儒佛會通)의 새 문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일본은 없다'와 '일본은 있다'는 사이길을 넓혀나가면 한국의 신문명국가 창조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초점	2	일본의 순수문학 국내에 본격 소개 문학선·개인전집 등 다양한 기획
표지인터뷰	3	서책과 필묵 속에 파묻혀 살아온 길 제5회 애서가상 받은 월전 장우성화백
현장취재	4	전국을 누비는 출판영업인들의 애환 '이동과 기다림의 연속'
출판과 우리자연	6	봄철 서점가에 온갖 '우리자연' 만발 한국에 터잡은 꽃과 나무 새 등 '자연알기' 잇따라
출판계 뉴스	7	4월부터 종이값 일제히 인상·외
출판 화제	8	독자적 분야로 자리잡은 '마을신앙' 연구 종래 '무속'연구 위주서 확대 양상
얼굴	9	민속과 풍습에 각별한 애정 지닌 주장현씨
출판 화제	10	나라마다 고유한 성풍속과 성문화 소개 11 참을 수 없는 성(性)의 가벼움
시간 리뷰	12	새로운 매체환경의 긴장 속에서 문자와 인쇄의 역사를 읽는 일의 의미
시간 읽기	14	진보적 지식인의 '반진보적인' 시각 책 런던의 「조선사람 옛보기」를 읽고
내가 읽은 원서	16	연극이 '여론의 거울' 되는 새로운 개념 지크프리트 멜링어의 「정치극의 역사」
작가 읽는 명화	17	아폴리네르가 읽은 브라크의 작품세계
나의 학문과 저서	18	삶의 방향과 사상의 역동성을 찾아서 「아우구스티누스」 삶의 고뇌를 탐구하며
서평	20	강영계 「니체, 해체의 모험」-최준성 윌터 J.웅 「구술문화와 문자문화」-우한용 21 윤현섭 「예술심리학」-김재은 22 조병희 「한국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이종찬 미셀 바렛 외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이경숙 23 매किन 「세계와 결혼한 여자」-이정옥 신철하 「푸른 대지의 희망」-하응백
종합 서평	24	문학으로 떠난 다양한 삶의 무늬들-이성욱 김소진·이상락·이순원의 최근 소설을 읽고
이 책 그 사람	26	「카피라이터 가라사대」 펴낸 김태형씨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펴낸 박시룡교수 27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펴낸 안상수씨 「연구실 밖으로 나온 심리학」 펴낸 최창호씨
세계의 출판	28	새롭게 떠오르는 스리랑카 문학 30 독자 서평 / 32 시간 안내 / 43 어린이 책